

민주 전주시장 결선투표 '대리전' 격화

'조지훈 지지' 국주영은 예비후보·'우범기 지지' 임정영 전 완주군수, 후보 엇갈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선거가 결선 투표 국면이 접어든 가운데, 결선 과정에서 핵심 변수였던 3위 국주영은 예비후보와 그녀를 도왔던 임정영 전 완주군수의 지지 방향이 서로 엇갈리며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한 배를 탔던 두 인물이 각각 우범기 예비후보와 조지훈 예비후보 진영으로 갈라지면서, 이번 결선은 단순한 후보 간 대결을 넘어 지지 세력 간의 자존심을 건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우범기-임정영 진영 측은 전주 대변혁을 위한 가치 연대 선언으로 먼저 기선을 제압했다. 16일 임정영 전 군수와 그의 핵심

지지자들은 우범기 예비후보의 선거 사무소를 전격 방문해 전폭적인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임 전 완주군수는 이 자리에서 "전주의 큰 변화를 위해 가장 발전에서 가장 열심히 뛰겠다"며 "시민이 꿈꾸는 전주의 미래를 우 예비후보와 함께 그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임 전 완주군수의 합류를 "전주시가 행정과 정치 모두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는 든든한 힘"이라고 평가하며, 두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주 경제를 살리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조지훈-국주영은 진영 측은 "전주다운 변화로 승리를 다짐하며 국주영은

이번 예비후보는 조지훈 예비후보의 손을 잡으며 맞불을 놓았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주영은 후보가 큰 결단으로 자신을 지지 선언을 해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예비후보는 "국 후보의 큰 결단이 결실을 맺도록 반드시 승리에 전주를 전주답게, 시민을 살기 좋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 예비후보의 이번 자신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한 것을 전주 변화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국주영은과 조지훈이 마음과 힘을 모아 시민과 함께 전주 발전을 위해 전격 짝주하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이번 민주당 전주시장 결선 투표에서 국주영은과 임정영의 엇갈린 선택이 우범기 예비후보와 조지훈 예비후보간의 투표에 최대 변수로 부상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주 시민들은 예외주시하여 바라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임 전 완주군수의 강력한 조직력이 우 후보에게 실질적인 득표를 가져다줄지, 아니면 예상에서 전주 시민을 위한 여성 특유의 섬세한 정책을 많이 발표한 국 후보의 상징성과 결단이 조 후보의 '전주다운 변화' 프레임에 힘을 실어줄지가 이번 결선 투표의 승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 진영 모두 이번 연대가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전주 시민을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 있어, 막판 세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만호 기자

"혼탁한 경선, 이제 그만... 도민 통합 나서야"

전북발전연합회, 전북 제2기 출범 선언 "이원택 후보와 연대, 전북 발전 견인"

전북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가 1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제2기 출범을 선언하며,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혼탁한 경선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회견에서 전북발전연합회 소속 회원 1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에서 최한양 회장은 "전북은 동쪽 소백산맥 서쪽 황해, 남쪽 노령산맥, 북쪽 금강을 경계로 한 천혜의 고장"이라며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 기능을 마무리고 이제 제2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시대에 맞춰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첨단화가 요구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잡음과 갈등이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과정에 대해 "축제의 화합의 장이 돼야 할 경선이 오히려 혼탁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와 경선 불복 움직임은 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선우 전북발전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경선이 끝나면 하나의 팀으로 결집해 본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 중앙당의 결정과 경선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발전연합회가 1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제2기 출범을 선언하며,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혼탁한 경선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고 촉구했다. 또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후보 간 잦은 입장 번복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영 연합회 사무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북발전연합회는 제2기 출범과 함께 도민 통합과 지역 발전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며 "행정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

보와 연대로 전북 발전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발전연합회 회원 모두는 "도민 주권 시대 실현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발전연합회는 2024년 최한양 회장과 일부 뜻있는 인사들이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 만든 자원봉사 단체로 이후 뜻있는 많은 도민들의 참여해 전북도

내 14개 시군에 지역위원회와 28개 직능별 분과 위원회를 두고 활발하게 전북 발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직이 확대되면서 회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원내에도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와 사회참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그랜드힐스 호텔에서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다. /1만호 기자

"책임 회피 정치, 민주당 신뢰 붕괴 초래"

김성수 도지사 예비후보 윤준병 위원장 사퇴 촉구

무소속으로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출마 중인 김성수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윤준병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김 후보는 9일 기자회견에 이어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끝내 민주당다운 선택을 했다"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문제 삼고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는 책임이 아래로 전가되는 구조가 아니라 위로 끌어올려지는 구조여야 한다"며 "청년 정치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전북 정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직과 도당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논란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그 책임은 더 위로 향한 수밖에 없다"며 "책임 회피가 반복될 경우 전북 정치에서 민주당의 신뢰 기반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북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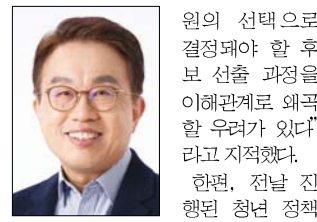
정책 경쟁 부재를 지목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후보는 '자산 기반 순환 투자 시스템'을 제시했다. 그는 "새남금 비SD 자산과 전북 펀드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금융화에 재투자해 연계를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정-자산-수익-금융-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통해 전북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역할 변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언론·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보상 프로그램 도입 계획도 제시했다. /1만호 기자

"구태정치로는 남원의 미래 없다"

양창모 남원시장 예비후보

양창모 남원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16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결선투표를 앞두고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태 후보의 이점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구태정치의 회귀"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지지선언을 빙자한 결집은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과거 정치로 돌아가는 흐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방식의 결집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온 시민주권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자 시민과 당



원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할 후보 선출 과정을 이해관계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진행한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일자리, 교육, 농업정책, 청년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제안된 내용들을 공약에 적극 반영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남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정기 부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김정기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4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부안군수 본경선을 통과하고 결선 투표를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인사로 개소식을 진행했다. 공약으로 김정기 예비후보는 모든

부안군민에게 군민기본소득 연 180만 원 지급, 군수 월급의 50% 농농인재육성 장학금 기부, 민6세~민17세까지 청소년들에게 연 50만원 '청소년 미래수당' 지급, 부안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춘나래' 시행, 기본 물품 및 의료를 위한 부안형 통합물품체계인 우리 동네 이웃출발, 소상공인을 위한 '상상나래' 경제 지원 및 자금 보증 확대, 에너지 기본소득 마을공동체 '햇빛행복마을' 조성 등 대표 공약을 제시했다. /부안=김성진기자

"30년 신의 짓밟은 표적 공천 배제"

김종담 도의원 예비후보, 공천 과정 불공정성 제기 "이미 재심 신청, 조만간 가처분 신청 등 대응 나설 것"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주시 제9선거구 출마를 준비 중인 김종담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예비후보가 공천 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1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생 지역과 당을 위해 헌신해 온 30년 정치 인생의 의의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비민주적 권력 사유화와 기화된 공천 배제의 실체를 도민과 당원 앞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에는 갑작스럽게 철회된다는 공식 확인까지 받았다"며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우세가 확인된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8일 갑작스럽게 12년 전 과거 사안을 끌어와 갑질을 부과했는데, 해당 사안은 이미 2022년 부당 이후 경선 당시 당헌 규정 에 따라 갑질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종결 사안"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표적 갑질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전주시 제9선거구 공천 방식 변경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선거구는 경선 일정과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유독 제9선거구만 발표가 지연됐다"며 "이후 여성경쟁 특별선거구"라는 생소한 방식이 갑작스럽게 도입되면서 경선 참여 자격 자체가 박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선 방법은 사전에 확정·공표돼야 하며, 후보 배제는

명시된 사유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 당헌·당규의 기본 원칙"이라며 "경선 직전에 규정을 새로 만들어 특정 후보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공정성 파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규정하며 △전주시 제9선거구 여성경쟁 특별선거구 지정 과정 전면 재조사 △공천심사위원회 의 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공개 △특정 인물 및 권력 실세의 개입 여부 철저 규명 등을 요구했다.

한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심을 신청했으며, 조만간 여성경쟁 특별선거구 지정 및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당헌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사발식을 진행했다.

한편, 전주시 9선거구는 서남이현 도의원과 박희자 예비후보의 두 여성후보 간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만호 기자

"전주 햇빛소득 4대 프로젝트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시민 소득을 창출하는 '전주형 햇빛소득 4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에너지를 시민의 실질적 부로 환원하겠다"며 "생산적 복지 모델로 시민의 지갑을 채우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은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를 통한 '1만 시민 주주' 참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농촌 어르신 햇빛연금 지급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우 후보는 임기 내 시민햇빛발전소를 확대해 시민 펀드를 조성하고, 생산 전력을 기업과 직접 거래해 참여

시민에게 연 7% 수준의 배당 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시설 옥상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마련한 재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에 연 20만 원 상당의 햇빛 기본소득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에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5만~10만 원의 햇빛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당선 즉시 '전주형 햇빛연금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 유휴부지 전소주사를 실시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마이스산단 연계 터미널 복합개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마이스(MICE) 산업단지 연계 터미널 부지 개발 구상을 발표하며 전주 원도심 재편에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16일 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미널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핵심 관문이자 플랫폼"이라며 "전주시 터미널을 호남의 관문이자 전북의 중심 플랫폼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종합경기장 부지에 조성될 마이스 산업단지를 터미널 권역 개발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며, 두 공간을 연계한 입체적 복합개발을 통해 전주의 도시 구조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 예비후보는 이번 사업의 출발점으로 현재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

스터미널로 분리된 구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터미널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문화·주거·상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터미널 핵심부와 배후 지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거점+소구역 패키지 개발 △시민 이의 중심의 민관협력 모델 △마이스 산업단지 및 전주원연계 개발 등 5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마이스 산업단지와 터미널 권역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보행 중심 거리와 특화광장을 조성하고, 비즈니스호텔 및 컨벤션 지원시설을 배치해 전시 수요를 흡수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만호 기자